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모음의 발음 설명

김서형* · 장향실** · 차재은*** · 전나영****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단모음의 제시 순서 검토
- IV. 단모음 교육에서의 발음 설명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내용’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단모음 교육에 적용하여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습 교재 및 선행연구에서의 단모음 제시 순서와 설명 방식을 검토하였다. 기존 교재와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교육 순서 및 설명 방식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음 설명의 경우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보다는 음운론적 이론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단모음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단계에서 교육되는 항목이므로 인접하는 음운들 간의 대조 편의성을 고려하여,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ㅂ, ㅃ, ㅅ, ㅆ, ㅇ’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발음에 대한 설명은 ‘정확성, 명료성, 실제성, 경제성, 적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원칙에 따른 각 모음의 설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저자

**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신저자

주제어 : 한국어 단모음 교육, 모음의 제시 순서, 한국어 발음 교육, 음운 교육

I. 서론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대부분 가장 먼저 교육되는 항목은 음운이고, 음운 중에서도 단모음이다. 그런데 단모음은 한국어 발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수-학습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제시-설명 단계’의 설명이 무엇보다 학습자에게 단순하고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발음 교육론에서 강조되어 온 조음 음성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설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혀끝을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최대한 올리세요.’와 같은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정확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해한다고 해도 이 설명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음음성학에 기반한 정확한 설명이되,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한 번 더 가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발음 지도 방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발음이나 발음 방법을 제공하는 교육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때 교육 자료에 제시되는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거리가 있다면 학습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내용’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단모음 교육에 적용하여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¹⁾

1)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단모음 교육 방안을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단모음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어 (발음) 교재에 제시된 단모음의 제시 순서와 발음 설명 내용이 학습자 수준에서 얼마나 이해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기존 연구 및 한국어 (발음) 교재에서 제시된 설명이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바로 사용되어도 학습자의 발음 이해와 생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²⁾

II.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단모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단모음을 대조 분석하고, 오류 사례에 따라 오류 원인을 밝힌 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김선정 1999 등),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권성미 2007 등),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박지연 2010, 김지형 2011 등)가 많다. 최근에 와서는 주요 언어권 이외에도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기타 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민상희 2010 등)로 다양화되고 있다. 물론 언어권을 구분하지

제안한다.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들, 예를 들어 비슷한 음운이나 변이음 정보를 활용하는 교육 방안들이 이용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이 연구는 동영상 교재 ‘『사랑해요 대한민국(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판)』’(2014, 국립국어원)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영상 교재를 제작하였다.

않고 학습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은경 2011 등)도 있다.

이들은 다시 연구 방법에 따라 한국어와 학습자 모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한 연구, 오류 양상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 실험 음성학에 기초하여 오류 양상을 관찰하거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와의 산출과 지각 차이를 밝힌 연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³⁾

이와 같이 한국어 단모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권별 대조 분석, 오류 진단, 오류 처치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단모음의 제시 순서나 설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허용·김선정(2003), 양순임(2003), 김은경(2006), 박기영(2007), 장향실(2014) 등 10여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이 연구들 중에는 단모음의 제시 순서만을 다룬 연구도 있고, 제시-설명 방식을 함께 다룬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3장과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재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단모음에 대한 제시 순서나 설명 방식이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교재는 출판 형태와 관계없이 발음 전용 교재, 통합 교재 가운데 발음이 목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제시된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교재는 발음 교육 전용 교재 2종, 통합 교재 3종이다. 교재 및 선행연구에서의 단모음 제시 순서와 설명 방식에 대해 살피고, 이를 학습자 중심의 단모음 교육 내용 기술에 적용하는 데 활용하기로 한다.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발음 교육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상수·송향근(2006), 김선정(2013)을 참고할 수 있다.

Ⅲ. 단모음의 제시 순서 검토

단모음의 제시 순서는 4장에서 논의할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설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 전용 교재와 통합 교재에 나타난 단모음의 제시 순서에 대해 비교 검토한 후, 이어 제시 순서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단모음 교수 항목의 순서와 그 근거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져,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제시 순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지 살피기로 한다.

교재 분석 시 통합 교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아직까지 학습자 대상 한국어 발음 전문 교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글 자모 교육 시 이루어지는 음가 교육을 발음 교육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통합 교재에서는 발음이 어휘나 문법 항목처럼 단원의 교육 목표 항목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단모음의 경우에는 한글 자모 교육 단계에서 문자와 그 명칭, 그리고 음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합 교재에 제시된 단모음 교육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⁴⁾

발음 교육 전용 교재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사랑해요 대한민국(중국어, 몽골어 판)」(2013)을 분석한다. 전자는 인쇄 출판 교재로 음성 파일이 함께 제공되며 후자는 동영상 교재이다.⁵⁾ 통합 교재로는

4) 통합 교재에서의 단모음 교육 대상은 한국어 입문/초급 수준의 학습자로 한정지을 수 있으나, 발음 전문 교재는 초급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발음의 내용이나 방법, 연습 활동 등에서도 이 두 종류의 교재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육 여건 상 별도의 발음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한글 자모 수업에서 단모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비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5) 「사랑해요 대한민국(중국어, 몽골어 판)」은 2013년 개발을 착수하여 2014년에 ‘발음편’ 7단원, ‘대화편’ 8단원의 2종의 동영상 교재로 출간되었다. ‘발음편’ 1단원에는 발음과 함께 문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사용자 수와 출판 시기를 고려해 선정된 것이다. 이는 단모음 발음 교육의 현재 실태를 고려하기 위함이다.⁶⁾

〈표 1〉 교재에 나타난 단모음의 체계와 제시 순서

약호	성격	교수 모음 항목	순서
A	발음 전문 교재 (인쇄 출판)	8모음	이 → 에 → ऐ → 아 → 어 → 오 → 우 → 으
B	발음 전문 교재 (동영상)	8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ㅑ
C	통합 교재 (인쇄 출판)	단모음, 이중 모음 문자 모 두 제시	<기본 모음> ㅏ → ㅓ → ㅗ → ㅜ → ㅗ → ㅜ → ㅜ → ㅟ → ㅡ → ㅣ <2차 모음> ㅐ → ㅑ → ㅕ → ㅖ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고빈도 오류 모음	‘ㅓ와 ㅗ’ → ‘ㅜ와 ㅡ’ → ‘ㅜ와 ㅗ’
D	통합 교재 (인쇄 출판)	10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ㅑ → ㅕ → ㅖ
E	통합 교재 (인쇄 출판)	한글 모음 21 글자	모음(1) ㅏ → ㅓ → ㅗ → ㅜ → ㅗ → ㅜ → ㅜ → ㅟ → ㅡ → ㅣ 모음(2) ㅐ → ㅑ → ㅕ → ㅖ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발음 교육 전용 교재 A와 B 두 종에서는 모두 ‘표준 발음법’ <붙임>의 허용 규정에 따라 8개의 단모음을 제시하였다. 단모음의 현실 발음에 대한

6) 「재미있는 한국어」는 한글 자모 교육 이외에 일부 음운이 별도로 발음 교육의 목표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학자들의 견해는 7모음 ~ 9모음까지 다양하게 개진되었지만, 본고에서는 교육 자료리는 측면에서 언어 규범에 따라 8모음 체계를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ㄱ’과 ‘ㄴ’의 합류도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단모음으로 제시하되 언중들이 잘 구별하지 못함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⁷⁾

모음의 제시 순서는 교재에 따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A 교재는 ‘전설고-전설저-후설저-후설고’ 모음과 같이 전설고모음에서 시작하여 후설고모음까지 자질의 변화에 따른 일방향의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B 교재 역시 ‘ㄴ’과 ‘ㄱ’을 제외하고는 자질의 변화에 따른 일방향의 순서로 제시되었으나 시작 모음이 ‘ㅏ’라는 점에서 A교재와 차별된다.

C 교재는 통합 교재이지만 발음이 교육 목표 항목으로 설정된 교재이다. 하지만 발음 교육 전용 교재처럼 모든 단모음이 발음 교육 항목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ㄷ’과 ‘ㄱ’, ‘ㅌ’와 ‘ㄷ’, ‘ㅌ’와 ‘ㄱ’가 교수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모음 ‘ㄷ’, ‘ㄱ’, ‘ㅌ’, ‘ㄷ-’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발생 빈도가 높은 모음들이며, 변별에 어려움을 겪는 모음들끼리 묶어 교육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은 문자적 차원의 한글 자모 교육 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 한글 자모는 제1권의 목차 앞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앞서 먼저 한글 자모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C 교재의 경우 자모 교육단계에서 전체 모음에 대한 음가 설명이 이루어진 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모음을 대상으로 발음 강화 수업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모 교육 단계에서의 모음의 교육은 문자 익힘에 초점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음 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모음을 제시할 때 발음의 이해와 산출을 고려하기보다는

7) 표준어 규정에서는 단모음으로 10개 모음을 두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음운론 논문이나 책에서는 8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발음실태 조사 I>(2002)에서는 80% 이상의 언중이 ‘ㄴ, ㄱ’를 중화하여 발음한다고 하였다.

한글맞춤법에서 규정한 자모순을 따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D 교재는 한글에 대한 역사와 자모 문자의 수를 제시한 후, 한글 자모의 발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어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되며, 혀의 위치와 입의 벌림 정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고 기술하였다. 이어 단모음, 자음, 이중모음의 소리 값과 쓰는 방법을 절을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자모 교육 단계에서 단모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E 교재도 한글 문자 교육 단계에서 ‘phonetic value’를 제시하면서 발음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자모의 순을 따라 모음이 제시되고 있어 발음 교육 측면에서 모음의 제시 순서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tip을 통해 ‘ㅈ’와 ‘ㄱ’의 발음, ‘내’, ‘고’, ‘개’의 발음이 서로 다르나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음 차이가 없다는, 발음 설명을 덧붙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발음 교육 전용 교재의 경우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고려되어 제시 순서가 설정되었음에 비해, 통합 교재는 단모음 교육이 대개 한글 자모 교육에서 이루어져 단모음의 제시 순서에 대한 고려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발음 교육을 다룬 연구에서 제안된 단모음 제시 순서이다. 단모음 제시 순서에 대한 연구 가운데 제시 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선행연구의 단모음 체계와 제시 순서

연구자	학습자 언어권	단모음의 제시 순서
허용·김선정(2003)	다국적	/ㅏ, ㅣ, ㅓ/ → /ㅑ(ㅕ), ㅓ/

양순임(2003)		ㅣ → ㅅ → ㅈ → (ㅊ, ㅉ) → ㅌ → ㅊ → ㅉ → ㅊ → ㅉ → ㅌ
김은경(2006)		ㅣ → ㅅ → ㅈ → ㅌ → ㅊ → ㅉ → ㅊ → ㅉ → ㅌ
박기영(2007)		ㅣ → ㅅ → ㅈ → ㅌ → ㅊ → ㅉ → ㅌ → ㅉ → ㅌ
장향실(2014)		ㅌ → ㅉ → ㅊ → ㅌ → ㅉ → ㅌ → ㅉ → ㅌ → ㅉ
하세가와 유키코 (1997)	일본어권	ㅌ → ㅉ → ㅊ/ㅉ → ㅌ → ㅉ → ㅌ → ㅉ → ㅌ → ㅉ
이향(2002)	중국어권	ㅣ → ㅌ → ㅉ → ㅌ/ㅉ → ㅌ → ㅉ → ㅌ/ㅉ → ㅌ/ㅉ/ㅌ/ㅉ ㅌ → ㅉ → ㅌ/ㅉ → ㅌ → ㅉ → ㅌ → ㅉ → ㅌ/ㅉ
우선희(2012)	영어권	단모음(1) / ㅌ, ㅉ, ㅊ, ㅉ / → 단모음(2) / ㅌ, ㅉ, ㅌ, ㅉ /
이중진(2012)	몽골어권	/ㅌ/와 /ㅉ/ → /ㅌ/와 /ㅉ/ → /ㅌ/와 /ㅉ/ → /ㅌ/와 /ㅉ/

선행연구의 단모음 제시 순서에서 시작 모음을 어떤 모음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ㅣ’로 시작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ㅌ’로 시작하는 견해이다. 단모음 목록의 교수 순서는 다르지만, ‘ㅌ’나 ‘ㅣ’를 교수 순서의 처음으로 삼는 근거는 ‘음가 설명의 용이성, 발음의 편이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음’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먼저 ‘ㅣ’ 모음부터 제시할 것을 주장한 논의로는 양순임(2003), 김은경(2006), 박기영(2007) 등이 있고 ‘ㅌ’모음부터 제시할 것을 주장한 연구로는 하세가와 유키코(1997), 우선희(2012), 장향실(2014) 등이 있다. ‘ㅣ’ 모음은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의 용이성이나 발음의 편이성을 고려할 때 처음 제시되는 모음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ㅌ’ 역시 언어 보편적이며, 음가 설명이나 발음이 쉽다는 점에서 처음 제시되는 모음으로 무리가 없다.

그런데 장향실(2014:232)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ㅌ’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ㅣ’는 고모음 계열에 ‘ㅣ, ㅡ, ㅏ’의 세 모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ㅣ’는 ‘ㅡ’와 개구도가 같아 조음 시 눈의 관찰만으로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ㅌ’

는 조음 시 구강의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고, 조음도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기준 모음으로 잡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고는 장향실(2014)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따르고자 한다. 사실 ‘ㅏ’는 음향 음성학적으로 ‘ㅣ’보다 음향 에너지가 크므로 더 명료하게 잘 들리는 소리라는 점에서도 처음 제시되는 모음으로 적합하다. 학습자 입장에서 인지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 보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첫 모음의 자격을 갖는 단모음으로 ‘ㅓ’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향실(2014)에 의하면, ‘ㅓ’는 언어권별로 조음 위치의 차이가 ‘ㅏ’에 비해 크다는 점이 문제이며, 이런 이유에서 중국어권 학습자가 범하는 대표적인 발음 오류 항목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한재영 외(2003)에서는 일본어 /u/는 원순 모음이면서 중설에 가까운 후설 모음이라 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모음이라 하였다. 한국어 /ㅡ/와 /ㅓ/의 중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권 학습자는 한국어의 /ㅡ/와 /ㅓ/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ㅓ’는 학습자 오류 발생 비율이 높은 모음으로서 교육 내용의 강화 항목에 포함되므로 ‘ㅓ’를 기준 모음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ㅏ’의 후속 모음으로는 인접음인 ‘ㅑ’가 적절하다. 이는 교수-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교수-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자질의 차이가 적을수록 교수자의 설명이 단순해지고 학습자의 이해가 용이해지는데 인접음일수록 자질의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⁸⁾

때문에 ‘ㅏ’를 시작 모음으로 할 경우 이어 ‘ㅑ’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

8) 장향실(2014:228)에서는 제시 순서 설정 시 학습의 용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설명이 쉬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음운의 경우 최소의 자질로 각 음운을 구별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다. ‘ㄱ’은 다른 언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보편모음은 아니지만, 인접의 연계성을 가지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접성 면에서 본다면 ‘ㅏ’ 다음에 같은 후설 계열 모음인 ‘ㅑ’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ㅏ’와 개구도에서만 차이를 가지는 ‘ㅑ’에 비해 ‘ㅑ’는 개구도뿐 아니라 원순성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설명이 좀더 장황해지게 된다. 따라서 ‘ㅏ’ 다음에 ‘ㅑ’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ㅑ’ 다음으로는 인접음 ‘ㅓ’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어서 ‘ㅓ’와 ‘ㅕ’, ‘ㅕ’ 다음엔 ‘ㅡ’를 교육하고, 그 다음엔 ‘ㅣ’ 모음을 제시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교수자가 각 음운을 인접음과 비교하며 최소의 자질 차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ㅕ’와 ‘ㅖ’가 남는다. ‘ㅖ’는 ‘ㅏ’와 조음 위치가 가까우므로 ‘ㅏ’ 다음에 ‘ㅑ’가 아닌 ‘ㅖ’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현대국어의 ‘ㅖ’는 ‘ㅕ’와 합류되었다는 점에서 설명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ㅏ’ 다음에는 ‘ㅑ’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ㅣ’가 끝난 다음 다시 전설 저모음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ㅕ’와 ‘ㅖ’ 순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ㅕ’와 ‘ㅖ’는 현대 한국어에서 대개 변별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말해 주고 이들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류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요컨대 단모음은 (1)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⁹⁾

(1) 한국어 단모음의 제시 순서

ㅏ → ㅑ → ㅓ → ㅕ → ㅡ → ㅣ → ㅕ → ㅖ

9) 이 제시 순서는 장항실(2014)의 결과와 같다. 본고의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모음 설명 방식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데 있다. 즉 4장에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런데 쉬운 설명은 제시 순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먼저 학습자 이해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단모음 순서의 적절성을 살폈다. 그 결과 장항실(2014)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목표 음운의 제시 순서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접 모음과의 비교 설명은 설명 내용의 범위를 축소시켜 학습자의 이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V. 단모음 교육에서의 발음 설명

1. 교재 및 선행연구의 설명 분석

학습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단모음의 발음 설명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서는 발음 설명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위해 먼저 기존 교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발음 설명 내용을 검토한다.¹⁰⁾

〈표 3〉 한국어 교재에서의 단모음 발음 설명

교재	설명 내용	보조 자료
ㅏ	A ① 입을 새끼손가락 세 개만큼 벌리세요. ② 혀는 최대한 내리세요.	입모양 ^{H1)} 개구도
	B (명시적 설명 없이 아나운서의 발음과 개구도, 입모양으로 대신함.)	입모양, 개구도
	C (목표 교육 항목이 아니므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ㅑ	A ① 입을 새끼손가락 두 개만큼 벌리세요. ② 입술과 혀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	입모양, 개구도
	B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고 발음해요.	입모양, 개구도
	C 입술을 크게 벌리되 ‘ㅏ’를 발음할 때보다는 적게 벌린다.	입모양
ㅓ	A ① 입을 새끼손가락 하나만큼 벌리세요. ② 입술은 둥그렇게 만드세요. ③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올리세요.	입모양, 개구도

10) D, E 교재는 음가 이외의 다른 설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발음 전문 교재의 내용만을 다루기로 한다. 다만 C 교재의 경우 단원에서 교육 항목으로 설정된 모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르다.

	B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해요.	입모양, 개구도
	C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발음한다. 입술을 동그랗게 한 채로 턱을 아래로 내린다.	입모양
T	A	① 입을 조금만 벌리세요. ②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세요. ③ 입술을 조금 앞으로 내미세요. ④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최대한 올리세요.	입모양, 개구도
	B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앞으로 쪽 빼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입모양, 개구도
	C	입술을 앞으로 돌출시켜 동그랗게 만들어 발음한다. 입술을 동그랗게 한 채로 앞으로 내민다.	입모양
ㅡ	A	① 입을 조금만 벌리세요. ② 입술과 혀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	입모양, 개구도
	B	‘ㄷ’은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소리를 내지만 ‘ㅡ’는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모양, 개구도
	C	입을 약간 벌려 혀가 평평하게 되도록 만든다.	입모양
ㅣ	A	① 입을 옆으로 길게 벌리세요. ② 혀는 입천장 쪽으로 올리세요.	입모양, 개구도
	B	입 안의 앞쪽에서 나는 소립니다.	입모양, 개구도
	C	(목표 교육 항목이 아니므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ㄱ	A	① 입을 새끼손가락 하나만큼 벌리세요. ② 혀는 [이] 보다 낮게 내리세요.	입모양, 개구도
	B	‘애, 에’ 이 두 모음은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ㄱ’은 손가락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 ‘기’는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두 모음의 중간 정도로 입을 벌려서 발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배울 때는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겠죠?	입모양, 개구도
	C	(목표 교육 항목이 아니므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ㅅ	A	① 입을 새끼손가락 두 개만큼 벌리세요. ② 혀는 아랫니 뒤에 두세요. (별첨: [애]와 [에]는 발음할 때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와 ‘개’처럼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듣거나 말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모양, 개구도
	B	‘애, 에’ 이 두 모음은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ㅅ’은 손가락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 ‘기’는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두 모음의 중간 정도로 입을 벌려서 발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배울 때는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겠죠?	입모양, 개구도
	C	(목표 교육 항목이 아니므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단모음 발음에 대한 설명은 세 교재 모두 모음의 구별 자질인 개구도,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을 통해 제공한다. A 교재와 B 교재의 설명 방식은 유사한 면을 보이는데, 개구도의 정도를 손가락 개수로, 혀의 위치를 방향어와 함께, 원순성을 입술 모양으로 기술한 점이 그것이다. C교재는 다른 모음과 비교하거나 턱이나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을 통해 발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조음 기관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이해하기에도 좋고 학습자의 기억하기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율적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 설명

- ① ㅏ: 입을 새끼손가락 세 개만큼 벌리세요. 혀는 최대한 내리세요.
- ② ㅑ: 입을 새끼손가락 두 개만큼 벌리세요. 입술과 혀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
- ③ ㅓ: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최대한 올리세요.
- ④ ㅕ: 입술과 혀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
- ⑤ ㅣ: 입 안의 앞쪽에서 나는 소립니다. 혀는 입천장 쪽으로 올리세요.
- ⑥ ㅞ: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게 기본입니다. 입을 새끼손가락 하나만큼 벌리세요.
- ⑦ ㅟ: 손가락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 입을 새끼손가락 두 개만큼 벌리세요. 혀는 아랫니 뒤에 두세요. 입술과 혀에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

①, ②, ⑥, ⑦의 경우 개구도의 정도를 손가락의 개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명시적이어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런데

11) 각 모음을 발음할 때의 입의 정면, 측면 그림이나 사진을 의미한다.

손가락 개수로 설명하는 방식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①, ②, ⑥, ⑦의 기술 내용은 해당 단모음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ㄱ’에 대해 ‘새끼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라고 한 기술이다. 이현복(1989)에 따르면 ‘긴 /어:/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게 발음하고, 짧은 /어:/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려 발음한다.’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ㄱ’은 아무리 개구도를 크게 한다 해도 두 개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②의 설명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ㄱ’ 발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 발음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 발음으로 유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ㄱ’에 대해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최대한 올리세요.’와 ‘ㅣ’에 대해 ‘입 안의 앞쪽에서 나는 소립니다.’와 같은 ③과 ⑤의 설명은 학습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인식된다. 혀의 뒤쪽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지시하는지, 최대한 올리는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ㅣ’를 발음할 때 혀를 입천장 쪽으로 올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렇게 발음할 때 혀에 힘을 줄 수 있어 정확한 발음을 산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입술과 혀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라는 ④의 설명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좀더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실제성’을 살린 교육 내용이 제안되는 것은 앞으로 교재 편찬에서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3) <교재 B>의 ‘ㅈ’, ‘ㅊ’에 대한 설명

‘ㅈ’, ‘ㅊ’: [예]와 [예]는 발음할 때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ㅈ’

와 ‘개’처럼 표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듣거나 말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두 모음의 중간 정도로 입을 벌려서 발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배울 때는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겠죠?

<교재 B>의 ‘ㅈ’, ‘ㅊ’에 대한 설명은 현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ㅈ’, ‘ㅊ’가 본래는 별개의 음운이지만 현재는 문자 차원으로만 구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제성 있는 설명 방식은 모어 화자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습자 중심 교수의 기본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이처럼 실제 발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단모음 발음 설명 방식의 기술 내용이다.

〈표 4〉 선행연구의 단모음 발음 설명¹²⁾

단모음	연구자	교육 내용	보조 자료
ㅈ	양순임(2003)	① 입을 /ㅈ/보다 더 벌려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한다. ② 뒤 혀가 연구개 쪽을 향하되, /ㅈ/보다 더 낮춘다. ③ 입술은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입을 아주 크게 열고 혀를 아래턱에 붙여서 내는 소리이다. 입을 ‘ㅈ’를 발음할 때보다 더 벌려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위 혀가 연구개 쪽을 향하되 ㅈ보다 더 낮춘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	-
ㅊ	양순임(2003)	① 입을 /ㅊ/와 같은 정도로 벌린다. ② 혀 위치와 높이도 /ㅊ/와 같다. ③ 입술은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12)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 모어의 발음과의 비교를 통한 설명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다른 모음과의 조음 차이 설명 방식에 관심을 두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만 인용하였다.

	김은경(2006)	‘ㄴ’을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혀의 뒷부분이 ‘ㄴ’보다는 낮고 ‘ㄷ’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하면 ‘ㄴ’을 제대로 발음한 것이다.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ㄴ/와 /ㄷ/: ‘오→어→오→어’와 같이 구별하여 연속적으로 발음을 보여 주고 학습자가 입모양의 차이에 따른 발음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다음 입모양을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차이를 구별하게 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ㄴ	양순임(2003)	① 입을 /ㄷ/보다 더 벌려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게 한다. ② 뒤 혀가 연구개 쪽을 향하되, /ㄷ/보다 더 낮춘다. ③ 입술은 둥글게 오므려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혀의 뒷부분을 ‘ㄷ’보다 내린 상태 즉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게 한다. 이 상태에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앞으로 내밀면서 발음한다.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ㄴ/와 /ㄷ/: ‘오→어→오→어’와 같이 구별하여 연속적으로 발음을 보여 주고 학습자가 입모양의 차이에 따른 발음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다음 입모양을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차이를 구별하게 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ㄷ	양순임(2003)	① 두 입술 사이로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을 조금 벌린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는 거의 닫힌 상태로 한다. ② 뒤 혀를 연구개 쪽으로 높이 올리되, 마찰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접근시킨다. ③ 입술은 둥글게 오므려 앞으로 약간 내민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입을 거의 다물고 입술을 둥글게 해서 내는 소리로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닿을 만큼 올려서 발음한다. 두 입술 사이로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을 조금 벌린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는 거의 닫힌 상태로 한다. 뒤 혀를 연구개 쪽으로 높이 올리되 마찰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접근시킨다. 입술은 둥글게 오므려 앞으로 약간 내민다.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	-
ㅡ	양순임(2003)	① 입은 /ㄷ/와 같은 정도로 벌린다. ② 혀 위치와 높이도 /ㄷ/와 같다. ③ 입술은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ㄷ’와 마찬가지로 입을 거의 다 다물고 입술을 평평하게 펴서 소리를 낸다. 이때 혀의 높이는 ㄷ와 같다.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입술 모양
	허용·	/ㄷ/ 소리를 낼 때처럼 아래턱이 거의 다 올라간 상태로 발음	구강 측면도,

	김선정(2006)	한다. 이 상태에서 아랫니가 조금 보일 정도이다. 이 소리가 /T/와 다른 점은 입술이 평평하다는 것이다. /T/ 상태에서 입술을 옆으로 퍼서 발음한다. /T/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약간 돌출되지만 /-/의 경우는 돌출되지 않는다.	입술 모양
l	양순입(2003)	① 두 입술 사이로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을 조금 벌린다. 윗니와 아랫니는 거의 닫힌 상태로 한다. ② 앞 혀를 경구개 쪽으로 높이 올리되, 마찰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접근시킨다. ③ 입술은 등글게 하지 않고, 가로로 편 상태로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입을 거의 다물고 내는 소리로, 입술을 양 옆으로 퍼고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바짝 접근시켜서 소리를 낸다. 즉 두 입술 사이로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을 조금 벌리는데 아랫니는 거의 닫힌 상태로 한다. 이때 입술을 등글게 하지 않고, 가로로 편 상태로 발음한다.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	-
ㄹ	양순입(2003)	① 입을 /l/보다 더 벌려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게 한다. ② 앞 혀가 경구개 쪽을 향하되, /l/보다 더 낮춘다. ③ 입술은 등글게 하지 않고, 가로로 편 상태로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l’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한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게 한다. 또한 앞 혀가 경구개 쪽을 향하되, /l/보다 더 낮춘다.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l/를 발음 몇 번 발음하게 하여 혀의 위치를 /l/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ㄹ/를 발음하면 효과적이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ㄴ	양순입(2003)	① 입을 /n/보다 더 벌려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수 있게 한다. ② 앞 혀가 경구개 쪽을 향하되, /n/보다 더 낮춘다. ③ 입술은 등글게 하지 않고, 가로로 편 상태로 발음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김은경(2006)	‘n’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입술 모양
	허용·김선정(2006)	/n/를 몇 번 발음하게 하여 입모양을 고정시킨 그 상태에서 소리만 /ㄴ/발음을 하게 한다.	구강 측면도, 입술 모양

위의 연구들과 같이 조음 음성학적 설명은 발음 교육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를 위한 교육 내용에 가깝다. 학습자 이해를 고려한다면 ‘연구개, 마찰음’과 같은 용어를 직접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또한 혀의 고저와 위치를 이용한 설명은 학습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발음을 생성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교수자가 ‘혀를 아래턱 쪽으로 붙이세요.’라는 설명을 해도 이 동작을 과연 학습자가 따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보다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설명과 함께 턱의 높낮이를 확인하는 것이 학습자 입장에서 더 쉬울 것이다.

(4) 선행연구에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 설명

- ① ㅏ: ㉠ 뒤 혀가 연구개 쪽을 향하되, /ㅏ/보다 더 낮춘다.
㉡ 위 혀가 연구개 쪽을 향하되 /ㅏ/보다 더 낮춘다.
- ② ㅑ: 뒤 혀가 연구개 쪽을 향하되, /ㅑ/보다 더 낮춘다.
- ③ ㅓ: 입을 거의 다물고 입술을 둥글게 해서 내는 소리로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닿을 만큼 올려서 발음한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는 거의 닫힌 상태로 한다. 뒤 혀를 연구개 쪽으로 높이 올리되 마찰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접근시킨다.
- ④ ㅣ: 입을 거의 다물고 내는 소리로, 입술을 양 옆으로 펴고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바짝 접근시켜서 소리를 낸다.
- ⑤ ㅕ: ㉠ 앞 혀가 경구개 쪽을 향하되, /ㅕ/보다 더 낮춘다.
㉡ ‘ㅣ’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한다.
- ⑥ ㅗ: ㉠ 앞 혀가 경구개 쪽을 향하되, /ㅗ/보다 더 낮춘다.
㉡ ‘ㅣ’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4)는 조음 음성학에 기초하여 조음 위치와 방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ㄷ’에 대한 ‘입을 거의 다물고 입술을 둥글게 해서 내는 소리로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닿을 만큼 올려서 발음한다.’와 같은 설명은 조음 음성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습자가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혀의 뒷부분’을 운용하지 못하고, ‘연구개’의 뜻을 학습자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의 ①에서 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명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설명은 교수자의 의존도만을 높일 뿐이다. 수업 외 환경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기술하여 학습자 주도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좋을 것이다.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한 ‘적합한’ 설명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어 보편적인 단모음으로는 ‘ㅣ, ㅏ’가 있다. 이들은 학습자가 이해하기도, 발음하기도 쉬워하는 모음이어서 오류도 적은 편이다. 그런데 위의 (4)를 보자. ①과 ④에는 ‘ㅏ’와 ‘ㅣ’를 설명하는 데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교수-학습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언어 보편적이며 오류가 적은 발음은 가능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모음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습득 및 산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⑤의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⑥의 ‘입을 제법 벌리라’는 설명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결국 부정확한 발음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설명의 내용대로 발음하려고 시도한다 하여도 개인에 따라 ‘혀의 앞부분의 반’을 쓰는 정도, ‘제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 정확한 발음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발음의 설명에서는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발음 교재와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 내용의 제시 및 기술 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습자 이해를 위해서

는 수업 외의 환경에서도 학습자 스스로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학습자 중심의 교육 내용 기술의 원리로 ‘정확성, 명료성, 실제성, 경제성, 적합성’을 추출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 기술 방식 원리에 따라 한국어 단모음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2. 한국어 단모음의 설명 방식 제안

교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단모음 설명 내용의 분석을 통해 기술 방식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 한국어 발음 설명 기술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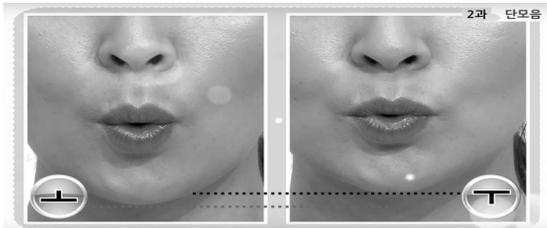
- ① 정확성: 조음 음성학 이론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
- ② 명료성: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으며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은 내용
- ③ 실제성: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한 실제 현실 발음을 존중하는 내용
- ④ 경제성: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쉬운 것은 간단하게, 어려운 것은 집중적으로 다룸
- ⑤ 적합성: 학습자 언어 수준에 맞는 용어 및 내용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자료는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은 잘못된 발음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ㄱ’이 전설 중모음임을 설명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라는 설명은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다. 사실 ‘ㄱ’은 이보다 더 폐모음이기 때문이다(신지영·차재은 2003).

‘명료성’은 확인 가능하도록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구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비교 대상이 없이 ‘입을 조금

별리거나 평평하게 한다.’ 등의 설명 방식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조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모음의 변별 자질 중 혀의 고저는 턱의 위치 변화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가시성이 떨어져 모호할 수 있는데 비해 턱으로 설명하면 명료해지는 것이다. 이는 특히 인접음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ㅏ → ㅑ → ㅓ → ㅕ’의 순서로 제시할 경우 저모음에서 고모음까지의 개구 정도를 학습자가 턱에 손을 대고 발음을 해 보면 그 차이를 즉시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턱의 위치 변화를 점선으로 표시해 학습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좋다.

<그림 1> 인접음과의 비교 설명¹³⁾



‘실제성’은 어문규범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다수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하는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제시함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규범음을 제시하되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발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것이다. ‘ㄱ’와 ‘ㄴ’의 발음에 대한 기술이 이에 속한다.

‘경제성’은 서술을 가능한 한 간략히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발음하기 쉬

13) 이 그림은 필자들이 개발한 동영상 발음 교재 『사랑해요 대한민국(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판)』(2014 개발, 2015년 출간, 국립국어원)에 제시된 것이다. 다음 <그림 2>도 이 교재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http://kcenter.korean.go.kr/>

위하거나 대부분의 언어(또는 모국어)의 음운 체계에 유사한 발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 발음 교재 B의 경우처럼 정확한 발음을 하는 아나운서의 발음, 입모양 등으로 얼마든지 음가 설명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ㄱ, ㆁ, ㅌ, ㅡ’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소의 자질 차이를 가지는 모음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도 결국 경제적 설명을 위한 것이다.

‘적합성’은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설명의 정확성을 위해 경구개, 연구개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에 부담감을 주게 된다. 단모음의 발음 교육은 거의가 학습 초기에 문자를 수업하면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입문이나 초급 수준인 경우 아무리 쉬운 한국어를 사용해도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런 경우 번역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시각 자료나 행위 등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ㅌ’를 발음하기 위해 ‘뒤 혀를 연구개 쪽으로 최대한 높이 올린다.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올려라.’ 등의 설명 대신 ‘ㄱ’를 발음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로로 양 입술 사이에 대고 이어서 ‘ㅌ’를 발음하게 한다.¹⁴⁾ 그러면 ‘ㅌ’는 ‘ㄱ’보다 고모음이어서 위 입술이 손가락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신체를 활용한 방법은 전신반응법처럼 초급 수준의 학습자나 아동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입력이야말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이윤희(2002)에서는 원순성과 평순성을 설명하는 데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원순과 평순 발음 시 달라지는 입술 모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본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은 ‘오’와 ‘우’의 구별 방법으로, 그 목표와 방법은 이윤희(2002)와 다름을 밝힌다.

〈그림 2〉 ‘오’와 ‘우’의 비교 설명



혀의 전후에서 차이를 가지는 ‘ㅡ, ㅣ’의 설명도 포스트잇과 같은 것을 전설 부분에 붙이고 ‘ㅡ, ㅣ’를 연속적으로 발화하여 입술 밖으로 나오는 포스트잇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설과 후설 모음이 입 안에서 발음되는 위치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 교육 내용의 제시 순서에 따른 기술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애란(2011), 김은애·민유미(2014)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각 모음의 발음을 설명할 때에는 정확한 발음 자료, 개구도, 입 모양 사진 등의 자료, 거울 등 보조 학습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다.

〈표 5〉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 설명 내용

단모음	발음 설명 내용 ¹⁵⁾	보조 자료
ㅏ	‘ㅏ’를 발음한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처럼 입을 크게 벌리세요. 턱이 아래로 내려가요.	올바른 발음의 입모양 사진 제시.
ㅑ	‘ㅑ’는 ‘ㅏ’보다 입을 조금 덜 벌려야 해요. ‘ㅑ’ 발음은 입술이 많이 등글지 않아요. 그리고 입술이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올바른 발음과 오류 발음의 입모양 사진을 비교 제시.
ㅓ	‘ㅓ’를 발음을 하고 입술을 등글게 모아 앞으로 내미세요. <‘ㅓ’와 ‘오’의 비교> : 집게손가락을 입술 1cm 앞에서 세로로 대세요. ‘ㅓ’를 발음할 때에는 손가락이 입술에 닿지 않아요. 그런데 ‘오’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손가락에 닿아요.	올바른 발음과 오류 발음의 입모양 사진을 비교 제시. ‘ㅓ’와 ‘오’ 발음의 비교 사진 제시.

ㅏ	<p>‘우’는 ‘오’보다 턱이 조금 더 올라가요. ‘우’는 ‘오’보다 입술을 조금 더 많이 내밀어요. 입을 앞으로 쪽 내미세요.</p> <p><‘오’와 ‘우’의 비교> : ‘오’를 발음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집게손가락을 가로로 펴서 대세요. 이어서 ‘우’를 발음해 보세요. ‘오’를 발음할 때 아랫입술, 윗입술 사이에 손가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를 발음할 때는 손가락이 아랫입술에만 닿고 윗입술에는 안 닿아요.</p>	<p>올바른 발음과 오류 발음의 입모양 사진을 비교 제시. ‘오’와 ‘우’ 발음의 비교 사진 제시.</p>
ㅡ	<p>‘우’를 발음하고 턱을 움직이지 말고 입을 양 옆으로 벌리세요.</p> <p><‘우’와 ‘으’의 비교> : ‘우’는 입술이 둥글고 앞으로 나오지만 ‘으’는 입술이 앞으로 안 나와요. (‘우’를 발음하며 손가락을 세로로 댄다. 이 상태에서 ‘으’를 발음하면 손가락에 입술이 닿지 않는다. 이 모습을 측면에서 찍은 사진 이용) ‘우’는 입술이 손에 닿지만 ‘으’는 입술이 손에 닿지 않아요.</p>	<p>올바른 발음과 오류 발음의 입모양 사진을 비교 제시. ‘우’와 ‘으’ 발음의 비교 사진 제시.</p>
ㅣ	<p>(양 손의 집게손가락을 입술의 좌우 양 가장자리에 댄 사진 이용) 입을 옆으로 많이 벌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음해 보세요. ‘ㅡ’보다 혀가 앞으로 나와요. (포스트잇을 전설 부분에 붙이고 ‘ㅡ’와 ‘ㅣ’를 각각 발음한 사진 비교 제시)</p>	<p>올바른 발음의 입모양 사진. ‘으’와 ‘이’ 발음의 비교 사진 제시.</p>
ㅑ	<p>‘이’를 발음하고 입을 아래로 벌리세요. 턱이 아래로 내려가요.</p>	<p>올바른 발음의 입모양 사진 제시.</p>
ㅓ	<p>‘애’는 ‘에’보다 입을 크게 벌려요. ‘에’와 ‘애’는 원래 다른 소리였어요. 하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소리를 비슷하게 발음해요. 두 소리가 거의 같아졌어요.</p>	<p>올바른 발음의 입모양 사진 제시.</p>

V. 결론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단모음 교육 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
- 15) 지면 제약 등의 이유로 발음 설명, 발음 시 입모양 사진, 인접음과의 비교 설명 사진 등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고의 설명에도 ‘조금’과 같은 부사어가 나오지만, 이는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단모음 교육 제시 순서에 따라 인접음과 비교 설명을 하며 “‘이’는 ‘아’보다 입을 조금 덜 벌려야 해요.”라는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기존 교재에서 각 음가에만 해당하는 ‘조금 벌리세요.’와 같은 설명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발음 교육 전용 교재 2종과 통합 교재 3종, 그리고 한국어 단모음 발음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단모음에 대한 제시 순서와 설명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단모음 발음 교육을 위한 목록 제시 순서와 발음 설명 방식에 대해 고찰한 결과, 교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에 차이가 큼을 보았다. 특히 설명 방식의 경우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보다는 음운론적 이론에 근거하여 정확한 설명에 비중을 두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설명이 단순하고 쉬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접음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운들 간의 대조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의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발음에 대한 설명은 ‘정확성, 명료성, 실제성, 경제성, 적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원칙에 따른 각 모음의 설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단모음 발음의 설명 내용은 학습자가 직접 인식하고 따라 하기 쉬워 이를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한국어 교재 및 발음 교재)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 2, 교보문고, 2008.
국립국어원, 『사랑해요 대한민국(중국어, 몽골어 판)』, 2014.
서울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2009, 랭지플러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2. 논문 및 단행본

- 권성미,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 일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상수·송향근,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2006, pp.155-183.
- 김선정, 『영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pp.153-169.
- 김선정, 『음성학을 활용한 발음 교육 및 습득 연구 동향』, 『언어와 문화』 9-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pp.117-139.
- 김은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은애·민유미, 『한국어 자모음 발음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56, 이중언어학회, 2014, pp.59-83.
- 김지형,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발달 단계 연구 - 단모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pp.91-115.
- 민상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10.
- 박기영, 『국어 음운론 지식과 한국어 발음 교육의 상관성에 대하여 -모음, 자음의 기술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5-1, 2007, pp.467-488.
- 박지연,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지각과 산출 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0.
- 신지영·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2003.
- 양순임, 『한국어 모음의 인지 및 발음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2003, pp.187-209.
- 우선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모 교수·학습 방안』,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유현정, 『한국어 교재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32, 한성어문학회, 2013, pp.489-511.
- 윤은경, 『한국어 단모음 습득 연구: L1과 L2의 상호작용가설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윤희,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 : 자모의 형태와 발음의 접목을 통하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중진,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단순모음과 폐쇄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이 향,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장향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운의 제시 순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1-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pp.221-245.
- 조은실,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변천 과정 분석 및 향후 과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 하세가와 유키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7, pp.161-178.
- 허용·김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2006.
- 홍종명, 『교재 선정을 위한 한국어교재 평가 모형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1, pp.413-438.
- Oxfor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ation of Korean monophthong
for Foreign Korean Learners

Kim, Seo-Hyung · Chang, Hyang-Sil · Cha, Jae-Eun · Jeon, Na-Young

This Study focused on the teaching-learning order and content of education of Korean monophthong.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Korean pronunciation and researches about teaching Korean monophthong.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re are few arguments of presentation and explanation about Korean monophthong pronunciation. It tells the lack of interest of pronunciation in whole Korean language curriculum. Comparing with all materials and researches of Korean monophthong pronunciation,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the teaching-learning order and content of education of Korean monophthong. To make the effective educational contents, this paper suggests 5 explanation principals of Korean monophthong; accuracy, clarity, authenticity, economic feasibility, suitability, content of explanation that Korean learners are passable to take cognizance and distinguish of Korean monophthong.

Key Word : Teaching Korean Monophthong, Teaching-Learning Order of Korean Monophthong,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Teaching Korean Phoneme

김서형

소속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haggeman@naver.com

장향실

소속 :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jhs-korea@sj.ac.kr

차재은

소속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jecha3@hanmail.net

전나영

소속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전자우편 : jeonny@yonsei.ac.kr

이 논문은 2016년 2월 29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